

기독교 사회복지사의 실천 경험에 대한 탐색적 연구*

김희수(한국성서대 사회복지학 조교수)

양혜원(총신대 사회복지학 조교수)

논문초록

본 연구는 기독교 사회복지사들의 사회복지실천에 현상학적으로 접근하여 이들의 사회복지실천 경험의 실제적 양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독교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회복지사로서 직접 서비스 실천 경험이 있는 12명의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내용에 대한 분석 결과, 총 169개의 의미단위가 도출되었으며, 이는 9개 주제에 대한 22개 의미의 통합으로 나타났다. 9개 주제는 기독교적 정체성, 기독교적 사명으로서의 사회복지, 교회와 사회복지와의 관계, 사회복지의 공공성과 기독교적 접근, 기독교적 인간관, 사회복지실천의 자세, 기독교 사회복지실천의 방법, 기독교기관에서 조직 및 동료에 대한 경험, 비기독교인 동료와의 관계이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기독교 사회복지실천 및 연구를 위한 함의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기독교 사회복지사, 실천 경험, 현상학적 연구

2008년 10월 15일 접수; 12월 6일 1차 수정; 12월 18일 2차 수정; 12월 20일 게재확정.

* 본 연구는 2007년도 한국성서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 I. 서론
- II. 선행 연구 검토
- III. 연구방법
- IV. 연구결과
- V. 결론

I. 서론

서구 사회복지의 발달과정을 살펴보면 초기 사회복지는 기독교 그리고 교회의 밀접한 관련성 속에서 시작되었다. 특히 엘리자베스 구빈법 이전의 서양사회에서 교회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중심기관이었고 중세 수도원은 다목적 보호시설의 기능을 수행하였다(윤철수 외, 2008: 46). 사회복지의 초기 발달이 기독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은 비단 서구에서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일제 강점기를 거치고 1950년대 전쟁으로 인해 고아와 미망인 등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상과 빈민이 크게 증가했던 시기에 주로 외국 민간원조기관들이 이들을 도왔으며(성민선 외, 2005: 53), 민간원조기관들은 주로 미국 기독교 교회를 중심으로 하고 있었다. 사회사업이라는 전문직이 학문적으로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된 것도 1947년 기독교계 사립대학인 이화여자 대학교에 기독교사회사업학과가 최초로 설립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강춘근, 2004: 42). 이처럼 서구나 우리나라 모두 사회복지를 논할 때 기독교와 분리하여서는 언급하기가 쉽지 않다. 기독교와 사회복지의 관련성은 현재에도 지속되는 것으로, 최근 기독교계의 사회복지 참여가 다소 약화된 경향이 있으나,¹⁾ 여전히 사회복지시설 운영 주체의 1/4이 기독교계이며, 사회복지사들의

1) 1980년대까지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주체의 60%를 개신교 교회와 기독교 단체들이 차지했었는데 비해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기독교계가 차지하는 비

60% 이상이 기독교인으로 알려져 있다(강춘근, 2005: 12에서 재인용).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배경과 사회복지실천에 대한 기독교계의 적극적 참여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가 국가의 정책으로 제도화되고, 지식, 기술, 가치 기반을 갖춘 하나의 전문직이자 독자적인 학문 영역으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에서는 기독교적 영향력이나 색채가 크게 약화된 것이 사실이다(최무열, 2004: 12). 특히 사회복지 연구자들은 가능하면 사회복지의 역사와 방법론에서 기독교적 영향력을 최소화시키거나 기독교적 관점을 배제하려고 노력해왔음을 부인하기 어렵다(전광현 외, 2005: 42). 이러한 상황에서 기독교 사회복지의 아직 고유한 정체성이나 학문적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일반적이다(강춘근, 2004: 43; 박종삼, 2000: 12). '기독교 사회복지,' '기독교 사회복지사,' '교회사회사업,' '교회사회봉사' 등 여러 용어가 명확한 구분 없이 혼용되고 있으며(조흥식, 2007: 142; 양혜원, 2008: 155),²⁾ 일반 사회복지와 차별화되는 기독교 사회복지의 개념에 대해 아직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다양한 입장들이 공존하고 있다(양혜원, 2008: 156-158). 특히 기존의 연구는 신학과 사회복지를 통합하려는 학문적 시도나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교회사회사업에 관한 것 등에 집중되어 있어서, 일선 현장에서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기독교 사회복지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지침이나 모델에 관한 연구, 혹은 그러한 지침이나 모델에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실천적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율이 전체의 25%로 감소하였고(손병덕, 2007: 159), 기독교 이외의 다양한 종교계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 2) "기독교 사회복지의 '기독교적 신념체계에 의한 복지, 기독교인이나 교회를 포함한 기독교단체가 주체가 되는 복지'이며, '미시적 접근 뿐 아니라 제도적, 정책적 접근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될 수 있다(양혜원, 2008: 156). 관련된 용어들의 개념과 용어 간 차이점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는 줄고, "기독교 사회복지의 개념과 실천모델에 대한 기초연구"를 참고하기 바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독교 사회복지사라는 용어의 의미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회복지사를 뜻하는 것이다.

한편, 사회복지지는 가치를 대단히 중요시하는 전문영역이며 아마도 철학을 제외하면 사회복지 전문직만큼 가치의 문제에 깊이 관심을 갖는 전문직은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Lowenberg & Dolgoff, 1996: 33에서 재인용). 그런데 신앙은 개인의 가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성경에 기초한 기독교적 가치관이 확고한 사회복지사의 경우, 신앙은 어떤 방식으로든 그의 실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바움과 그의 동료들(Baum et al., 1987: 178)은 종교적 가치가 사회복지실천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낙태, 동성연애, 안락사 등과 같이 민감한 문제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고 하였다.

사회복지와 기독교 사회복지지는 핵심적 가치의 상당 부분을 공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강춘근(2005: 35)은 '사회복지실천의 기본적인 가치가 인간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신뢰이며 모든 인간이 가치적 존재로서 인정되고 사회복지실천 서비스가 인간에 대한 긍정적 가치를 내면화시키고, 또 기독교 사회복지가 지향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근간으로 하는 것이라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가치'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회복지와 기독교 사회복지가 상충하거나 갈등하는 측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일반 사회복지가 인간 중심적 가치를 갖는데 비해, 기독교 사회복지지는 하나님 중심의 가치를 가진다. 김기원(1998: 13)은 기독교 사회복지를 '하나님의 사업(God's work), 거룩한 사업'이며, '인간을 영생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는 일련의 구원사업(salvation work)'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일반 사회복지실천에서 '가치는 시간과 장소, 특히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반면, 기독교의 원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 절대적이라고 주장하는 절대주의적 가치를 갖는다(강춘근, 2005: 19-21).

이렇듯 사회복지와 기독교 사회복지지는 가치와 원리의 차원에서 공유되는 부분도 있지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존재하며 그러한 차이로 인하여 기독교 사회복지실천이 일반 사회복지실천과 차별화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추론된다. 그러나 기독교 사회복지실천의 실제적 양상이 어떠한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별로 알려진 바가 없으며, 기독교 사회복지실천의 실체는 여전히 모호한 채로 남아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회복지사들의 실천 경험을 탐색함으로써 신앙이 사회복지실천에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고찰하고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회복지사들의 다양한 실천경험의 실제적 양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기독교 사회복지에 대한 당위적 차원이나 관념적 차원에서의 논의가 아닌,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수행되고 있는 기독교 사회복지실천의 실상이 정확하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해는 신앙과 사회복지실천을 보다 적극적으로 통합해 나갈 수 있는 방안 마련 및 체계적인 기독교 사회복지실천 모델 개발의 초석이 될 것이다.

II. 선행 연구 검토

1. 국내 연구 동향

기독교 사회복지와 관련된 국내 연구동향을 정리해 보면 크게 실태조사 연구, 기독교 사회복지 기초이론 연구, 사회복지 대상 및 문제 영역에 대한 교회 사회사업 연구, 그리고 사회복지실천 관련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기독교 사회복지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로는 기독교 교단이나 교회가 주체가 되어 실시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전반적인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손병덕, 2004, 2003; 이경우, 2000)와 교회의 사회복지실천에 대한 인식 및 자원에 대한 연구(이만식, 2007)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기독교 사회복지의 기초이론에 대한 연구로는 사회복지실천의 근거를 기독교 혹은 성경적 원리에 기초하여 조망한 연구(손봉호, 2007; 최무열, 2003; 노상학, 1995; 오정수, 1991), 선교나 구원과 같은 기독교의 특정 주제와 사회복지의 관련성을 다룬

연구(김은홍, 2007; 김동춘, 2007), 기독교 사회복지 혹은 교회사회사업의 학문적 체계를 고찰한 연구(강춘근, 2004; 박종삼, 2003, 1996; 김은수, 2001; 김은수 외, 1998) 등이 있다. 셋째, 교회사회사업연구로는 아동·청소년(박은미, 2005; 조화래, 2003), 노인(권중돈, 2003), 여성(문순영, 2003), 장애인(권선진, 2003; 이준우, 2003) 등 다양한 대상과 빈곤(김인, 2003), 비행 및 범죄(최옥채, 2003), 알코올(유채영, 2003), 외국인 노동자(김구복, 2003) 등 특정 문제 영역에서의 교회사회사업적 접근에 대한 연구들이 있다. 넷째, 사회복지실천 관련 연구로는 집단 대상 실천 방법(전석균, 2003), 사례관리(이시연, 2003), 자원개발 및 관리(정무성, 2005; 강영실, 2003), 프로그램 개발(정무성, 2003) 그리고 가치 및 윤리에 관한 연구(강춘근, 2005; 오정수, 2003) 등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상기한 연구들은 연구의 방법이나 내용이 제한적이고, 연구의 수준 역시 초보적인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먼저, 연구방법에 있어서 국내 기독교 사회복지 연구는 대부분 문헌연구로 이루어져서 소수의 실태조사 연구를 제외하고는 다양한 연구방법, 특히 실증적 연구방법에 의한 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 문헌연구라는 제한된 연구방법에 의존하면서, 기독교 사회복지의 효과적인 실천방안 모색은 물론이거니와, 기독교 사회복지실천의 구체적인 실상 파악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연구의 내용에 있어서는 지나치게 기독교 사회복지의 기초이론이나 교회사회사업에 집중되어 있어서, 기독교 사회복지실천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일반 사회복지실천과 차별화되는 독특성에 대한 연구, 또는 교회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광의의 기독교 사회복지실천에 대한 연구는 크게 부족하다. 또한 국내의 기독교 사회복지 연구는 그 수준이 아직은 초보적이라고 하겠다. 대다수 이론에 대한 연구는 관념적이고 당위론적인 논의에 머물러 있고, 실천방법에 대한 연구들 역시 일반 사회복지실천 방법을 소개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진 국내의 기독교 사회복지 연구는 주로 문헌

연구이고, 대부분 이론적 논의나 사회복지의 일반적 방법을 소개하는 정도 또는 교회사회사업의 방향을 제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일선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활동하는 기독교 사회복지사들이 어떤 방식으로 기독교 사회복지를 실천하고 있는지, 혹은 어떻게 기독교 사회복지를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으로서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2. 국외 연구 동향

최근 서구에서 기독교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주제는 사회복지실천에 영성과 종교를 통합하는 것이다. 전미사회사업가협회(NASW,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의 사회복지사 윤리강령(NASW Code of Ethics, 1999)에 제시된 사회복지사의 문화적 역량에 대한 기준에 영적, 종교적 다양성이 포함되어 있고, 미국사회사업교육협의회(CSWE, Council on Social Work Education, 2001)로부터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에서 영성이나 종교적 이슈를 다루어야 한다는 규정은 사회복지실천에서 영성과 종교가 얼마나 강조되고 있는가를 반증한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실천에서 영성과 종교가 부각된 맥락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 중 한 가지는 사회복지가 강조해 온 전체론적 접근(holistic approach)에 있어서 기준에 제시되었던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차원에 영적종교적 차원이 더해져야 한다는 인식이 대두된 것이다(Carroll, 2001). 다른 하나는 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다양성 혹은 다문화와 관련된 이슈가 중요성을 더하면서, 그 일환으로 영적종교적 다양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것이다(Barker, 2007).

사회복지실천에 영성과 종교를 통합하는 것에 관련된 연구는 크게 이론적 기반에 대한 연구, 실천적 활용에 대한 연구, 사회복지교육에 대한 연구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이론적 기반에 대한 연구는 주로 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영성과 종교에 대한 접근의 필요성을 논의하거나 사회복지실천과 영성

종교의 통합을 위한 개념적 모델들을 제시하는 것이다(Bullis, 1996; Canda & Furman, 1999; Carroll, 2001; Svare et al., 2003). 둘째, 실천적 활용에 대한 연구로는 클라이언트의 영성이나 종교에 접근하기 위한 전략에 대한 연구(Sheridan, 2004; Cascio, 1998), 영적 사정이나 영적 가계도 등 실천적 도구에 대한 연구(Hodge, 2001a, b, 2003), 대처방안으로서 영성과 종교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Curlin et al., 2005) 등이 있다. 셋째, 사회복지교육에 대한 연구는 영성이나 종교와 관련된 교과목 개설의 실태나 인식(Barker, 2007; Russel, 1998; Sheridan & Amato-von Hemert, 1999; Sheridan et al., 1994), 영성과 종교를 다룬 교과목의 내용과 효과성(Bethel, 2004), 사회복지실습과 영성종교(Larson & Robertson, 2007; Parr & Jones, 1996) 등을 다루고 있다.

이와 같이 여러 유형의 종교와 영성을 포괄하는 차원의 연구 뿐 아니라 직접적으로 기독교에 초점을 맞춘 보다 본격적인 기독교 사회복지 연구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기독교 신앙과 사회복지실천의 통합에 대한 실천적 전략이나 방안에 대한 연구(Sherwood, 1989; Fitts, 2003; Chamiec-Case 2007), 교회 기반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연구(Johnson et al., 2000; Staral, 2000), 기독교 신앙과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연구(Chamiec-Case & Sherr, 2006), 기독교 사회복지사의 소진에 대한 연구(Collins, 2005) 등이 있다.

요약컨대, 서구를 중심으로 한 국외에서는 사회복지실천에 영성종교를 통합하려는 논의가 대단히 활발하여 다양한 연구가 축적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이미 NASW나 CSWE와 같은 사회복지의 대표적 조직을 통하여 영성과 종교가 사회복지 연구와 실천의 중요 영역의 하나로 인정되는 것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또한 기독교 사회복지 연구가 그 필요성이나 개념 등을 다루는 원론적인 수준을 넘어서서, 실제적이고 구체화된 수준에 이르러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국내의 연구와는 대조를 이룬다고 하겠다.

III.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기독교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회복지사들의 실천 경험을 탐색함으로써 기독교 신앙이 사회복지실천에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고찰하고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회복지사들의 다양한 실천경험의 실제적 양상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기독교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는 기독교 사회복지사들의 사회복지실천 경험은 어떠한가?'라는 핵심연구문제를 설정하고 기독교 사회복지사들이 클라이언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사로서,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를 탐색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질적 연구방법 중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선택하였으며 심층면접을 통하여 기독교 사회복지사들의 인식과 경험의 본질적 내용을 포착해내고자 하였다.

2. 연구 참여자 선정

본 연구의 참여자는 비확률 표본추출기법 가운데 눈덩이 표본추출에 의하여 표집 하였다. 연구 참여자 선정 기준은 기독교법인이 운영하는 서울 소재 사회복지기관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회복지사로 정하였으며, 연구의 주요 초점이 기독교 사회복지사들의 사회복지실천 경험을 탐색하는데 있으므로 클라이언트를 직접 대면하는 직접서비스 경험이 있거나 연구시점 당시 그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만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 연구자들이 알고 있는 5개 기관의 사회복지사 가운데 상기한 기준에 부합하는 5명의 사회복지사로부터 연구를 시작한 후 이들로부터 면접내용에 답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사들을 소개받아 최

종적으로 총 12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성별을 보면 여성이 5명, 남성이 7명, 연령은 26세에서 37세까지이다. 신앙생활기간은 모태신앙이거나 최소 약 12년에서 최대 약 30년까지였으며,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을 보면 최소 3년 9개월에서 최대 15년까지이다. 연구 참여자들의 학력은 대졸이 4명, 석사과정 재학 중이거나 수료 혹은 졸업한 경우가 7명, 그리고 박사과정 재학 중인 경우가 1명이다. 출신대학의 특성을 보면, 일반 대학 2곳을 제외하면 10명 모두가 기독교 대학이거나 신학대학에서 공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현재 근무 기관의 특성은 종합사회복지관이 6곳, 노인복지관 2곳, 장애인복지관 2곳, 그리고 법인 2곳이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특성

구분	성별	연령	신앙생활 기간	학력	출신대학 특성	사회복지 분야경력	현재 근무기관 특성	현재 담당업무
참여자1	여	34세	25년	박사과정 재학	기독교 대학	9년	사회복지 법인	연구 및 산하기관 지원 업무
참여자2	여	26세	모태 신앙	석사과정 (신대원) 재학	기독교 대학	3년 9개월	종합사회 복지관	아동 및 청소년복지 업무

구분	성별	연령	신앙생활 기간	학력	출신대학 특성	사회복지 분야경력	현재 근무기관 특성	현재 담당업무
참여자3	남	34세	27년	대졸	신학대학 (신학석사전공)	5년 4개월	종합사회 복지관	지역사회조직 업무
참여자4	남	35세	20년	석사과정 수료	신학대학	10년	종합사회 복지관	재가복지 총괄 업무
참여자5	남	33세	19년	대졸	신학대학	9년	노인복지관	기획 및 지역복지 업무
참여자6	남	35세	23년	대졸	신학대학	11년 4개월	사회복지 법인	법인사업 총괄 업무
참여자7	여	35세	30년	석사과정 졸	기독교대학	11년 2개월	종합사회 복지관	총무 업무
참여자8	남	33세	모태 신앙	석사과정 졸	일반대학	8년 3개월	종합사회 복지관	복지사업 총괄 업무
참여자9	여	27세	12년	석사과정 재학	기독교대학	4년 3개월	노인복지관	사회교육 및 고령자 취업 관련 업무
참여자10	여	37세	23년	대졸	기독교대학	15년	종합사회 복지관	재가 및 가족복지 업무
참여자11	남	34세	모태 신앙	석사과정 졸	신학대학 (신학전공)	5년 4개월	장애인 복지관	기획 업무
참여자12	남	31세	모태 신앙	석사과정 재학	일반대학	4년 4개월	장애인 복지관	기획 및 홍보 업무

3. 자료 수집

자료 수집은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선정된 연구 참여자들과의 심층면접을 통해 이루어졌다. 심층면접은 2008년 2월부터 4월까지 기간 중에, 연구 참여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기관 내 면접이 가능한 공간이나 혹은 연구자의 연구실 등 면접 내용에 대한 비밀보장이 가능한 곳에서 이루어졌으며, 1회당 1~2시간 정도가 소요되었다. 연구 참여자들과 사전 접촉하는 과정에서 연구목적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는 과정을 가졌으며, 면접을 시작하기 전에 연구목적

및 면접내용에 대한 비밀보장, 그리고 면접내용이 연구목적 이외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에 대해 알려주었다. 또한 면접 이후 추가적인 정보 수집을 위하여 전화접촉이나 추가면접이 있을 수 있음에 대해서도 미리 설명하였다.

면접은 <표 2>에서 제시된 반구조화된 질문목록을 활용하여 이루어졌는데, 신앙생활에 대해 질문하는 내용으로 시작하여 연구 참여자와의 면접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다른 영역의 내용으로 질문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사전에 계획된 질문내용이 아니라 할지라도 연구목적에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질문들을 자유롭게 활용함으로써 연구 참여자들의 사회복지실천 경험을 끌어내고자 노력하였다.

연구 참여자들과의 면접내용을 녹음한 후 필사하여 문서화하였다. 2인의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 6명씩 나누어 면접하였기에 상대 연구자가 면접한 녹음자료와 필사자료를 상호 검토함으로써 면접내용을 이해하고 공유하는 과정을 가졌다.

〈표 2〉 면접 내용 개략

구 분	면 접 내 용
신앙생활 관련	과거 및 현재의 신앙생활경험, 기독교 신앙과 관련된 앞으로의 계획 등
전공 및 직업선택 관련	사회복지전공 및 사회복지사라는 직업 선택 배경
기독교 및 사회복지의 역할 관련	세상에서 기독교의 역할, 세상에서 사회복지의 역할 등
사회복지실천 관련	선호하는 사회복지 지식기술가치, 기독교 사회복지실천의 개념, 사회복지실천과 기독교의 접목, 기독교 사회복지사로서 미래 계획 등
동료 및 기관 관련	동료관계, 신앙과 관련한 기관 문화 등

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지오르기(Giorgi)가 제시한 현상학적 방법에 의해 분석하였고 그의 연구방법은 전체에 대한 느낌 파악 → 의미단위(meaning unit) 구분 → 학문적 언어로의 변형 → 일반적 구조 기술로의 통합이라는 4단계로 구분된다(신경림 외, 2004: 243-245; 장수미·김주현, 2005: 137). 첫 번째 단계에서는 필사된 자료 전체를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읽는 과정을 통해 면접 내용 전체를 이해하고 느낌을 파악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본 연구의 초점이 되는 '기독교 사회복지사들의 실천 경험은 어떠한가?'라는 질문에 중점을 두고 필사된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읽으면서 기독교 사회복지사의 실천 경험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의미 있는 내용들을 구별하였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총 169개의 의미단위가 도출되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도출된 169개의 의미단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연구 참여자의 일상적인 표현을 학문적인 언어로 변형하였고 그 과정에서 169개의 의미단위를 22개 의미의 통합으로 묶어내었고, 다시 9개의 주제로 유목화 하였다. 이 단계에서 연구자들은 연구 참여자들이 이야기한 바의 내용에 대하여 왜곡이나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원자료의 전체적인 맥락 내에서 도출된 의미단위가 가지는 명확한 뜻을 파악하고자 노력하였다. 마지막 단계는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고려하면서 변형된 의미단위를 일관된 진술로 통합하는 단계로, 기독교 사회복지사로서 연구 참여자들이 보고한 사회복지실천 경험을 일관성 있는 보통의 경험 구조로 정리하였다.

연구의 신뢰성과 관련하여 신뢰성의 기준인 사실적 가치, 적용가능성, 일관성, 중립성³⁾(신경림 외, 2004: 254-255에서 재인용)을 확보하고자 다음과

3) 사실적 가치는 연구결과가 연구 참여자들의 지각과 체험의 진실성을 반영하는 정도에 대한 평가기준, 적용가능성은 연구결과를 연구상황 이외의 맥락에 적용할 수 있는 정도를 평가하는 기준, 일관성은 자료의 수집과 분석, 연구결과에 일관성이 있고, 연구결과가 모순됨이 없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정도에 대한 평가기준, 중립성은 연구의 전 과정에서 연구자들이 편견으로부터 벗어

같은 과정을 가졌다. 먼저, 연구자 2인은 분석 과정을 수행하면서 의견 차이를 보이는 부분들에 대하여 끊임없이 의사소통함으로써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연구자들의 개인적인 경험에 대하여 '괄호치기(bracketing)'⁴⁾하고자 주의를 기울였다. 정리된 연구결과에 대하여 연구 참여자 4인에게 연구 결과가 자신들의 경험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였고, 연구 참여자와 유사한 특성을 가지는 사회복지사 1인과 불특정 독자 1인에게 본 연구의 결과물이 자신의 사회복지실천 경험에도 적용 가능한지에 대해 평가받았다. 또한 질적 연구의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학 전공 연구자(교수) 2인에게 자문 받는 과정을 거쳤다.

IV. 연구결과

1. 기독교 사회복지사의 사회복지실천 경험의 주제와 의미

연구 참여자들과의 면접을 통해 얻은 사회복지실천 경험으로부터 도출된 의미단위, 의미의 통합, 주제를 기독교와 사회복지실천의 관계, 기독교 사회복지실천의 실제, 기독교 조직문화 및 동료관계로 영역을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3>과 같다.

난 정도에 대한 평가기준이다.

4) 괄호치기란 후설(Husserl)이 사용한 용어로, 질적 연구의 과정에서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을 제쳐두거나 보류하는 것을 의미한다(신경림 외, 2004: 236).

〈표 3〉 영역별 구성요소

영역	주제	의미의 통합
기독교와 사회복지의 관계	① 사회복지실천의 기독교적 정체성	i) 사회복지실천의 뿌리는 기독교 ii) 사회복지사는 기독교 실천의 도구
	② 기독교적 사명으로서 사회복지	i) 사회복지사는 교회와 기독교인이 당연히 해야 하는 일 ii) 기독교 사회복지사는 환경적 변화에도 관심을 가져야 함
	③ 교회와 사회복지의 관계	i) 교회와 사회복지기관은 상호보완적이어야 함 ii) 교회와 사회복지가 서로 이해하지 못함
	④ 사회복지의 공공성과 기독교적 접근	i) 종교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함 ii) 사회복지의 공공성과 기독교적 접근 사이에서 고민함 iii) 기독교적 색채를 드러낼 수 있음
기독교 사회복지 실천의 실제	① 기독교적 인간관	i) 클라이언트를 하나님이 지으신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함 ii) 클라이언트의 불완전성을 수용함
	② 기독교 사회복지 실천의 자세	i) 실천과정에서 하나님을 의식함 ii) 낮은 자세로 클라이언트를 섬김 iii) 자연스럽게 기독교가 드러나도록 함
	③ 기독교 사회복지 실천의 방법	i)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의뢰함 ii) 기독교와 관련된 내용을 다룸 iii) 클라이언트의 역량을 강화함
기독교 조직문화 및 동료관계	① 기독교 기관에서 조직 및 동료에 대한 경험	i) 비권위적인 조직문화를 경험함 ii) 기독교적 조직문화를 통해 성장함 iii) 직장 동료와 신앙적으로 교류함
	② 비기독교인 동료와의 관계	i) 믿지 않는 동료를 전도의 대상으로 생각함 ii) 믿지 않는 동료의 입장을 헤아림

(1) 기독교와 사회복지실천의 관계

① 사회복지실천의 기독교적 정체성

i) 사회복지실천의 뿌리는 기독교

연구 참여자들은 사회복지의 근간이 기독교라는 인식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다. 이는 초기 사회복지가 교회나 기독교인들에 의해 시작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생각이라기보다는 사회복지의 가치가 기독교 정신과 가치에서 비롯되었다는 인식으로 보인다. 참여자들은 이러한 인식을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셨던 활동이 바로 사회복지다(참여자1, 참여자4), 예수님이 기독교인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바로 사회복지실천이다(참여자8)라고 표현하였다.

"저는 사회복지의 뿌리는 기독교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예수님이 했던 것들, 그리고 하나님이 태초에 하셨던 것들이 바로 지금의 어떤 사회복지 활동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가치가 사람 사랑,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회복지도 마찬가지로 지라는 생각이 들고..."<참여자4>

"예수님이 하셨던 활동이 사회복지다, 아예 그냥 딱 얘기를 하세요.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음... 그...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중략) 채움을 주는 그런 사역이었다, 그러니까 인생이 그런 사역이셨다, 그래서... 그래서 그 음... (사회복지실천이) 그런 그 정신을 되살리는 거 같아요."<참여자1>

"저는 기독교에서 원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결국은 사회복지 근간이고, 뭐.. 어.. 또 원하는,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그냥 생각합니다."<참여자8>

ii) 사회복지의 기독교 실천의 도구

연구 참여자들은 사회복지를 기독교 신앙을 실천하는 하나의 도구로 인식하고 있었다. 사회복지를 기독교의 핵심적 사명인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으로 여기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연구 참여자 개개인이 사회복지사로서의 삶을 선택하게 된 배경과도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참여자12>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회복지사로 쓰시는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사회복지사로서 강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다분히 기독교 신앙에 기초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성경에 왜 천국이 멀게 있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나 뭐, 억울한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천국이 지금 여기에 있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저는 그거를 실천할 수 있는 게 한 가지는 교회고, 한 가지는 사회복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참여자2>

"하나님께서 저를 그냥 단지 사회복지사로 쓰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중략) 기독교 사회복지라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도구로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서, 기독교 사회복지가 쓰임 받는.. 기독교 사회복지라는 어떤 분야가 쓰임 받는 거라고 생각하고..." <참여자12>

② 기독교적 사명으로서 사회복지

i) 사회복지에 교회와 기독교인이 당연히 해야 하는 일

연구 참여자들은 사회복지실천을 교회와 기독교인의 당위적인 사명으로 인식하였다.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일이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적 사항이 아니라 교회와 기독교인이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일로 여기는 것이다.

"사회복지는 수단이 아니고, 사회복지에 크리스천이,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하는 사명이고, 당위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중략) 당연히 교회가 지역사회에 베풀어야 되고, 지역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구요." <참여자3>

"제일 싫은 게 교회에서 한 달에 매달 얼마씩 지원해주는 분들이 있는데 교회에 등록해야 되는 게 조건인 경우, 전 그런 게 되게 싫거든요. 교회는 일단 어렵거나 힘들거나 그런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도와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있구요." <참여자2>

"뭐 교회에서 하는 뭐 온갖 구제 사업 이런 것들이 음... 그러니까 교회에 어떤 부속사업처럼 되어 있잖아요. 교회는 사회봉사도 일부 해야 한다, 구제도 해야 된다, 그게 일부 사업이 아니고요.

어... 그거 자체가 하나의 그 아... 기독교인이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교회면 당연히 해야 되는거..."<참여자1>

특히, 사회복지지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으로, 교회가 사회복지지를 선교의 수단으로 여기거나 주변적인 사업으로 치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인식을 분명히 하면서, 교회 등록이 경제적 지원의 조건이 되거나<참여자2> 구제와 사회봉사가 일종의 부속사업으로 간주되는<참여자1> 현실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ii) 기독교 사회복지지는 환경적 변화에도 관심을 가져야 함

연구 참여자들은 기독교 사회복지가 미시적 차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제도와 정책과 같은 거시적 차원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인식하였다.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사회복지실천이 가난한 이웃들에게 물질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사회복지 제도와 정책에 영향을 미쳐 환경적 변화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클라이언트의 개인적 차원 뿐 아니라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다양한 환경체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사회복지의 정체성이 기독교 사회복지에 제대로 접목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느끼는 것으로 보였다.

"제가 생각하는 사회복지지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기대하시는 그 수준에, 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존엄성을 발휘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굉장히 폭넓은 의미구요. (중략) 교역자들이 바라보는 사회복지지는 여전히 굉장히 제한적인 의미..."<참여자1>

"그런 교육과 관련된 일, 제도를 막 바꾸고, 잘못된 제도들에 대해 비판을 하고, 사회제도 변화와 그런 역할에 이르기까지. 그니까 교회가 주는 서비스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중략) 예수님이 와서 하셨을 때 어느 한 부분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적으로, 필요했

있을 때는 그 시대가 요구한, 그 상황이 요구한 여러 가지 다양한 역할들을 했던 것처럼 그렇게 다양하게....."<참여자7>

③ 교회와 사회복지의 관계

i) 교회와 사회복지기관은 상호보완적이어야 함

연구 참여자들은 교회와 사회복지기관이 상보적인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풍부한 물질적 자원과 인적 자원을, 사회복지기관은 이러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두 기관이 상호보완적 관계를 이룰 때 보다 효과적으로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교회에 대한 일을 하는 것도 자원들이 교회만 물리면 안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회 내 자원을 지역사회에 흘러 보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구요. (중략) 조금 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 크리스천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체계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실천을 가지고 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 사회복지실천을 기독교라는 영역 안에 실천과 지식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참여자3>

"이렇게 소외되고 힘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늘 그런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 서비스를 통해서 전달하고 그런 자원들을 개발하고 제대로 연결이 되고 투명하게 전달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을 해야 될 것 같구요. 특히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인적, 물질 그런 자산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하잖아요."<참여자7>

ii) 교회와 사회복지가 서로 이해하지 못함

그러나 교회와 사회복지기관이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는 당위적인 혹은 이상적인 생각과는 달리, 연구 참여자들의 현실적 경험은 교회

와 사회복지기관이 서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고유한 역할을 충분히 존중하지 않는 것이었다.

"본질을 서로 모른 채로 교회에서는 사회복지 해야지 이러면서 사회복지 하고, 사회복지 쪽에서도 교회랑 같이 하면 뭐 후원도 해 주고 하니깐 그냥 하고, 이 정도로만 많이 생각을 하는데 (중략) 서로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본질에 대해서. (중략) 사회복지에서도 자원의 문제만으로 교회에다 손을 내밀게 아니고, 반대로 교회 쪽에서도 선교를 목적으로만 사회복지를 할 게 아니니라..."<참여자2>

"신학생들 대상으로 사회복지 훈련이라는 거를 기획해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신학생들도 만나고 교역자 분들도 많이 만났었어요. 근데 이 분들이 갖고 계신 사회복지에 대한 건 너무나 정 말 어... 정말 지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큰 틀, 그리고 어떤 음... 교회라는 큰 그거를 빛내주는, 그냥 하나의 액세서리 같은 거더라구요."<참여자1>

<참여자2>는 교회와 사회복지기관이 서로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각자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상대방과 도구적인 수준에서 연대하는 현실에 안타까워했고, <참여자1>은 사회복지사의 입장에서 교회와 교역자의 사회복지에 대한 제한적 인식과 사회복지의 고유한 역할에 대한 몰이해에 당혹스러움을 표출하였다.

④ 사회복지의 공공성과 기독교적 접근

연구 참여자들은 전원이 자신들의 근무처가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일종의 '공공기관'이며, 자신들이 다양한 종교적 배경을 가진 지역사회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공적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공공의 성격이 강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현장에서 기관운영주체의 기독교적 색채나 자신의 신앙이 어떻게 자리매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

양한 입장을 보였다. 이는 종교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경우, 기독교적 성향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경우, 그리고 이러한 두 입장 사이에서 갈등하는 경우로 나누어진다.

i) 종교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함

종교적 중립성을 강조하는 연구 참여자들은 클라이언트에게 기독교 신앙을 강요하거나 종교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기독교재단에서 운영하는 기관의 경우에도 예배나 기도회와 같은 종교적 행사는 지양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자신이 속한 기관과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공공성을 매우 강하게 의식하고 있었는데, '세상 안에서'〈참여자10〉, '나라의 돈,' '국고보조금'〈참여자5〉, '업무시간'〈참여자6〉 등의 표현은 이러한 인식을 잘 드러낸다고 하겠다.

"제가 뭐 아주 신앙인이어도 신앙을 강요할 수 없다고 생각하구요.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세상 안에서 이렇게 사회복지 활동 할 때는 별로 좋지 못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참여자10〉

"나라의 돈을 받지 않으면 정말 저희가 기독교정신으로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이게 국고보조금을 받았다는 게 남들은 준공무원 인줄 알고... 저희가 뭐, 제대로 말을 하나도 표현 못하죠. (중략) 상담을 하거나 뭘 했을 때 저희가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거나 기도를 해서 시작을 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중략) 상담할 때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건 같더라는 거죠."〈참여자5〉

"강요나 그런 건 하고 싶지가 않고 또 특히나 업무시간에 아침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시작하고.... 모르겠어요. 기독교인들끼리 업무시간 외적으로 하는 건 상관없는데 (중략) 저희가... 성격이 거의 저는 공공기관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렇다면.. 그게 더 낫지 않을 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강제적으로 이렇게 예배드리고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참여자6〉

그러나 종교적 중립성이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의 연구 참여자들도 자신의 신앙이 사회복지실천과 무관하다고 생각하거나 신앙과 사회복지를 통합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예컨대, <참여자6>은 종교적 색채를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사회복지실천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클라이언트가 선한 기독교인의 모습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기독교와 사회복지실천을 통합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⁵⁾

ii) 기독교적 색채를 드러낼 수 있음

반면에, 일부 연구 참여자들은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기독교적인 색채를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다고 인식했고, 또 그렇게 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인식에는 신앙과 사회복지실천의 통합에 대한 연구 참여자 개인의 신념 뿐 아니라 이들이 속한 기관의 특성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기독교적 색채를 드러낼 수 있는 근거로, '우리의 태동과 역사가 그러니까' <참여자1>, '전제가 여기는 기독교기관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참여자11>, '저희 미션의 첫 번째가 기독교정신' <참여자3> 등과 같이 소속 기관의 강한 기독교적 특성을 제시하였다.

"클라이언트한테 이렇게 노출을 하지 않아야 되진 음... 노출을 해서는 안 된다는 아닌 거 같아요. 왜냐면 우리의(참여자가 근무하는 복지관의) 태동과 역사가 그러니까. 근데 어... 강요할 순 없고,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를 드러내는 거는 오히려 우리의 색깔일 수 있고..." <참여자1>

"전제가 여기는 기독교기관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어요." <참여자11>

"저희 미션의 첫 번째가 기독교정신인데요. 그런 고민을 사실 했

5)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149쪽 <참여자6>의 진술에 제시되어있다.

어요. 우리 미션을 사업에 반영하고, 그리고 미션을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 행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사실 고민을 했었고...”

<참여자3>

iii) 사회복지의 공공성과 기독교적 접근 사이에서 고민함

종교적 중립성을 엄격하게 지켜야한다거나 혹은 기독교적 색채를 드러낼 수 있다는 분명한 입장을 가진 연구 참여자들과는 달리, 신앙과 사회복지실천을 어떻게 통합시켜나가야 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스러워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공공의 성격이 강한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특성과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 존중과 다양성에 대한 수용이라는 사회복지의 윤리적 요청, 그리고 사회복지를 통하여 기독교적 사명을 실천하고자 하는 자신의 신앙적 욕구 사이에서 딜레마를 경험하고 있었다. <참여자7>과 <참여자9>는 진도 등 본격적인 종교적 활동을 할 수 없는 한계에 대해 아쉬움을 느끼고 있었고, <참여자8>은 분명한 입장을 결정짓지 못한 채 고민하고 있었다.

“복지관 안에서 이제 전도하고 싶은, 그니깐 자기는 선교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더 중요한데 실제로 클라이언트를 만났을 때, (중략) 마음이 안타까워서 이제 전도를 하고 싶은..... 근데 사회복지 저희 뭐 윤리 이런 부분이나 기관윤리나 뭐 이런 거를 봤을 때, 사회복지를, 어떤 활동을 하면서 종교를 전하거나 이런 것 자체가 그걸 허용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참여자7>

“그런 기독교적인 색깔을 더 나타내고 싶지만, 음... 조금 중립을 지켜야 되는 부분 그런 것 때문에... 음... 좀 만족스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기독교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생각한다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참여자9>

“조심스러운 거 같아요. 물론 이제 뭐 어린이집이나 뭐 이런 곳에서, 저희 복지관 어린이집 이런 곳에는, 뭐 아이들을 위해서 부활절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런 것도 하지만, 내가 개별 클라이

ენტ를 만났을 때 과연 그렇게 하는 게 과연 맞을까, 뭐 옳은 어떤 결정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 판단하지는 못하겠어요.”<참여자8>

(2) 기독교 사회복지실천의 실제

① 기독교적 인간관

i) 클라이언트를 하나님이 지으신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함

연구 참여자들은 기독교적 인간관에 기초하여 클라이언트를 바라보고, 그러한 관점에서 클라이언트들에게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이 언급한 내용의 핵심은 클라이언트의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중요시 한다는 것으로, 이는 <참여자1>이 언급한 바와 같이, 겉보기에는 사회복지에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인간에 대한 존엄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이들이 클라이언트를 존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동기는 클라이언트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고, 이는 인본주의적 동기에서 비롯된 일반 사회복지에서의 인간의 존엄성과는 구분되는 것으로 보인다.

“(클라이언트들을) 하나님이 존엄하게 지은 어떤 피조물로 보는 거,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물론 사회복지에서도 인간의 존엄성 얘기하고 그런 부분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거와는 좀 더 다른, 오히려 더 이렇게 훨씬 더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더 큰 거죠. 왜냐면 하나님이 부여한 거니까... 같은 존엄성이라 해도 누가 그 존엄함을 인정하느냐 내지는 부여하느냐에 따라 또 격이 다르잖아요.”<참여자 1>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한 영혼이 실족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저기 그... 안타까워하시잖아요.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볼 때 함부로 못하게 되는 거 같아요.”<참여자 10>

<참여자1>은 인간에게 존엄성을 부여한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

신이 생각하는 클라이언트의 존엄성은 일반적인 의미의 인간의 존엄성과 분명하게 차별화되는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참여자10> 역시 한 사람의 클라이언트를 소중히 여기고 함부로 대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안타까워하시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ii) 클라이언트의 불완전성을 수용함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기독교적 인간관에 의해 클라이언트의 불완전한 모습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사회복지사는 자신이 최선을 다해 도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비합리적인 사고나 역기능적인 행동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클라이언트들을 종종 접하게 되고, 이 경우, 클라이언트를 전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런데 연구 참여자들은 기독교적 인간관, 즉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기독교적 관점을 가지고 그러한 클라이언트들을 진정성을 가지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있었다.

"저는 오히려 기독교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 불완전하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불완전함 있죠? 그거를 되게 많이 이렇게 그..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내가 용납할 수 없는 가치나 이해되지 않는 일을 하는 분들도 일단 상했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럴, 그럴 수... (중략)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건 일단 되는 것 같아요."<참여자10>

"상대에 대해서 어, 왜 이렇게 살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거보다는 되게 참 불쌍하고 기독교적인 눈으로 봤을 때 참 되게 좀 피폐하고 영혼이나 이런 게, 그런 거 보면 그냥 마음에서 그런 마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안쓰러운 마음도 들고, 그니까 인간적인 동정심, 이런 거 보다는 그냥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되게, 한 그 영혼에 대해서 되게 불쌍한 마음이 들고, 그런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참여자2>

이러한 클라이언트에 대한 수용 역시 사회복지에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특히 인본주의학파에서 강조하는, 인간에 대한 무조건적 수용과 흡사한 것이다. 그러나 그 내면적 동기는 상당히 다른 것으로 보인다. <참여자10>은 모든 인간이 불완전하고 손상된 존재이기 때문에, <참여자2>는 인간적인 동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에 대한 수용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② 기독교 사회복지실천의 자세

i) 실천과정에서 하나님을 의식함

연구 참여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면서 사회복지실천 활동을 수행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는 구체적인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아야 한다<참여자 6>, 그리고 업무상의 긍정적인 성과 역시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참여자 9>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회복지사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봄으로써 소진의 위험에서도 회복할 수 있다<참여자 10>고 하였다.

"우선 사업계획 할 때요, 일단은 하나님을 욕되게.. 그러니까는 욕되게는 만들면 안되겠다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중략) 제 모습이 일단은... 그제...그... 예수님의 얼굴이라고 생각되거든요."<참여자 6>

"내가 이 일을 이 성과를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는 일이지 내 개인적인 어떤 성과가 아니다 그런 부분들...(후략)"<참여자 9>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내게 힘을 주실 거니까 목적을 거기서 찾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내가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평가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좀 미성숙하고 불완전한 모습이 드러나거나 소진될 때 빨리 재기할 수 있는 거 같아요."<참여자 10>

즉, 사회복지사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개인적 차원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와 역할을 살펴보고, 긍정적인 성취를 하였을 때 혹은 소진의 위험과 같이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조차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i) 낮은 자세로 클라이언트를 섬김

연구 참여자들은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에서 그들보다 낮은 위치에서 섬기고자 하는 자세,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다. '섬김'은 기독교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단어로 예수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모습을 묘사하는 대표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클라이언트에게 도움을 주는 자로서 그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기 보다는 오히려 클라이언트를 높이고 존중하는 자세를 가짐으로써 예수를 본받는 기독교인의 모습을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클라이언트) 위에서 무언가를 지시하고 지도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그 밑에 들어가서 클라이언트에 대한 책임은 그 사람들의 충분히게 마음을 들어주고 존중해주고, 그런 식의 섬김, 내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를 알게 되면 그런 책임성 때문에 또 다른 그런 역할들이나 자세를 취하게 되잖아요."<참여자 7>

"제가 생각하면 항상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이 정말 어르신을 주께 하듯 그렇게 하는 마음. 제가 계속 섬김에 대해 얘기하는데 그런 신앙적인 마음... 기관에서 물론 요구하는 부분도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그 어르신들 한 분, 한분을 정말 섬기는 그 마음을... 이제 신앙적인 거죠."<참여자 9>

iii) 자연스럽게 기독교가 드러나도록 함

연구 참여자들은 사회복지사로서 클라이언트를 만나는 가운데 자신들의 모습, 직업인으로서의 삶을 통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였

다. 직접적으로 클라이언트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거나 종교를 강요하는 행위 대신, 클라이언트를 위해 사회복지사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

“(클라이언트나 자원봉사자들에게) 우리가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는 안 되고... 그냥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당신에게 최대한 어떤 친절과 호의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저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 어르신이...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살아가는 이유를 발견하고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이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좀 심어준다고 하면... 그럼 나중에 혹 저를 생각할 때 좋은 감정을 갖고 있다고 하면 저 사람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좀 뭔가 다르구나 뭐 그런 게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이렇게 직접적인 말씀이나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참여자4>

“종교 강요 전혀 안하고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런 모습 보여줌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좀 있지 않았나... 이게 저는 방법 중에 방법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중략) 클라이언트들이 우리를 볼 때 너무도 선한 크리스천인거예요. 우리 자원봉사 오시는 분들에게도 제가 절대, 종교 강요 못 시키게 합니다. (중략) 그런 모습 말고 자신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끔 하시라고... (중략) 봉사활동이라든지 직원들 태도가 너무 다 좋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저렇게 사람들이 편해지고 행복해진다는 걸 자연스럽게 인식시켜 주는 거죠.”<참여자 6>

이렇게 연구 참여자들이 클라이언트들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다르다' <참여자 4>, '교회 다니니까 저렇게 편안하고 행복하다' <참여자6> 등과 같은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기저에는 자신들의 직업적인 삶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기독교를 전하고자 하는, 복음전파라는 기독교의 본질적 소명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기독교 사회복지실천의 방법

i)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의뢰함

연구 참여자들은 개인 기도를 통하여 클라이언트 혹은 수행하고 있는 사업을 위해 하나님께 의뢰하며, <참여자 10>의 면접 내용에서 보듯이 자신이 그 일을 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지혜와 도우심을 구하고 있었다. 앞서 설명한 '실천과정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세'는 구체적인 기독교 사회복지실천 방법의 하나로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클라이언트나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를 위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일지라도 뭐 제가 늘 그 분(클라이언트)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거 같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참여자 3>

"사회복지 하는데 있어서도,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도 계속 이제 기독교적인 부분이 자연스럽게 와요. 그래서 과연 이 사업이 정말 클라이언트들한테 이제 과연 합당한 사업일까요 기도도 하고요." <참여자 6>

"기도하지 않는 것은 자기가 할 만하다고 느끼는 교만함이거든요. 근데 일할 때 정말 그런 거 많이 느껴요. 할 만하다고 한 번 생각하기 시작하면 계속...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 태도로 일하다 보면 어느새 인가 다시 이제 소진되고 그런 분명히 있거든요. 일할 때마다 정말 할 수 없는 일 만날 때... 나는 정말 할 수 없습니다라고 나가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요. 그리고 그러고 나면은 정말 일할 때 도우시는 걸 느끼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참여자 10>

ii) 기독교와 관련된 내용을 다룸

클라이언트와 사업을 위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모습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기독교 사회복지실천 방법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클라이언트와 기독교 신

양을 주제로 상담을 하거나<참여자 1, 참여자2>, 기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예배, 기도와 같은 기독교 의식을 도입하고<참여자 11>, 목회자를 자원으로 연결하거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을 연결<참여자 1>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교회 목회자를 연결한 적도 있어요. 이 분의 주제가 정말 신앙에 대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다 들어갈 수 없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뢰를 했던 적도 있고 예... 또 뭐 교회의 뭐 그런 가정생활 학교 같은 것들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음... 의뢰 내지는 정보 제공을 했던 것. 아주 구체적인 예들은 그런 분들도 있었구요. (중략) 가정 폭력피해 여성들을 만날 때는 (중략) 이 여성들이 본인의 존재나 왜 나는 이 모양일까 내지는 왜 내 팔자는 이렇까? 이런 부분들 조금 자기 자신의 부분들에 집중하게 될 때 그런 때는 (중략) 필요한 경우에 종교적인 얘기를 했던 거 같구요.”<참여자 1>

“아주 드물지만, 오시는 분들 중에 신앙에 관련된 이야기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녀 양육하는 이런 얘기하다가 뭐, 이렇게 뭐, 교회를 다니시는지 물어보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 이렇게 하실 때 제가 신학공부를 한 게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참여자 2>

“(클라이언트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중략) 항상 프로그램 가질 때도 기도하고 시작하고 그리고 작업장에 있을 때도 하루 일과 시간 전까지 장애인 친구들이 기도하고 시작해요.”<참여자 11>

연구 참여자들의 이러한 경험들은 사회복지실천 과정 중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영적 영역에 개입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는데, <참여자 1>, <참여자 2>의 경험에서는 영적영역에 대한 기독교적 개입이 클라이언트의 필요와 욕구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참여자 11>의 경험에서는 교회가 운영하는 지적장애인

대상의 기관이므로 클라이언트의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다.

iii) 클라이언트의 역량을 강화함

연구 참여자들은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에 대하여 도움을 받는 사람의 개념이 아닌, 함께 하는 '파트너', '동반자'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사회복지실천 과정에서 클라이언트를 동반자로 인식하고 협력하는 것은 역량강화 접근의 기본적인 시각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의 기저에는 앞서 언급한 기독교적 인간관 중 클라이언트를 하나님이 지으신 가치 있는 존재로 보는 관점이 깔려있음을 알 수 있다(참여자 12). 또한 클라이언트를 단순히 도움을 받는 객체로 여기기보다, 서비스 제공의 주체로서 사회복지실천 과정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기회를 제공하며(참여자 4), 사회복지사가 주도적으로 혹은 클라이언트 대신 무엇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자신 삶의 주체로서 스스로 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역할을 함(참여자 10)으로써 클라이언트의 기본적인 능력과 역량을 강화해나가는 접근을 하고 있었다.

"그냥 장애인이라고 이용인이라고 생각하면.. 제가 줄려고만 생각하게 될 거 같아요. 근데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한 영혼이라고, 그 어떤 지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중략) 친한 친구 같기도 하고 그냥 얘기도 이렇게 뭔가.. 지나며... 한 두 마디를 하더라도 뭔가 교감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저에게 있어서도 큰 힘이 되고.. (중략) 어떤 파트너 친구, 동반자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참여자 12>

"클라이언트들도 본인들이 서비스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무조건 받기만 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중략) 그래서 제가 그 분(클라이언트)한테 요청한 게 그분이 또 교회를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면 어르신이 이 서비스를 받기만 하지 말고 우리한테도 좀 줘라. (중략) 다 믿는 사람들인데 어르신 우리 얼굴 보시고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줘라. 그럼 그것이 어르신이

우리를 위한 서비스다. 그래서 '받기만 하지 마시고 어르신도 주세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왔어요."<참여자 4>

"(클라이언트들이) 자기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가장 적절한 거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뭘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 막 이끌어 가는 게 아니라 지역조직 하나를 하더라도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일할 맛이 나고 살맛이 나서 그렇게 하려고 하계끔 만들어주고 그리고 자기 삶에 대한 의지를 갖거나 그런 생각을 갖는 것도 스스로 가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주고 정말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 같아요."<참여자 10>

(3) 기독교 조직문화 및 동료관계

① 기독교 기관에서 조직 및 동료에 대한 경험

i) 비권위적인 조직문화를 경험함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기독교법인이 운영하는 조직에서 일하면서, 상하 위계관계에 근거한 권위적 특성 보다는 공동체 의식에 근거한 비권위적인 조직 문화 속에서 일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상급자들의 비권위적인 모습을 경험하였으며, 스스로 하급자에 대하여 비권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또한 이는 일반적인 상하관계의 조직문화와는 다른 기독교 기관의 독특한 특성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내가 뭐 상사라서 어떤 권위를 내세우고 뭐 이리기 보다는 같이 해야 되는 어떤 부분들도 사실 많고 또 뭐 그리고 사실 또 기독교인 어떤 문화, 그 사실 공동체성, 뭐 조직이기 보다는 어떤 조직이기 보다는 공동체라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하의 관계나 그런 것들이 (중략) 공동체인데 그니깐 다 믿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경직되고 그렇게 해야 될까하고 많이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참여자 8>

"기독교기관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서로를 위해서 되게 그... 어떤 일을 할 때는 대게 줌..자유로워요. 어~ 권위가 없고, 권위적인 부분이 적어요. 예. 적고..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고.. (중략) 분위기가 서로 칭찬해 존경해주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는 분위기들이..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유로워요. 분위기가 자유롭고 깔끔하고 일할 때도 자기 의견들이 많이 이렇게 개진되고.. 그런 게 하나의 장점이, 기독교..기독교적인 문화가 그런 문화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참여자 11>

ii) 기독교적 조직문화를 통해 성장함

연구 참여자들은 기독교를 기반으로 하는 조직문화 속에서 일하면서 개인적인 성장을 경험하였다. 여기서 개인적인 성장이라 함은 사회복지사로서의 전문적 성장 뿐 아니라 기독교인으로서의 신앙적 성장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그러한 성장은 상급자, 동료, 그리고 기독교 조직문화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단지 사회복지사로서의 고민뿐만 아니라 제가 신앙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고민에 대해서도 수퍼비전을 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중략) 기관 문화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중략) 워낙에 신앙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그 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고 또 기관 문화 자체가 기도 후원자라든지 뭐 교회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는 문화들이 있고 하다 보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점점 더 저 안에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참여자 3>

"신앙적인 면도 그렇고, 일적은 부분에서도... 그런 고민들(내가 오늘보다 좀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계속적으로 하는 그런 공동체인 것 같아요. (중략) 그리고 항상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접할 수 있는, 뭐 Q.T 문화나 예배문화 이런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직원들 간의 어떤 관계 그리고 제가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 그리고 이렇게 지지해주고 역량을 더 강화해줄려고 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 모두가

만족스럽구요. 예, 많이 저한테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지해주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참여자 9>

iii) 직장동료와 신앙적으로 교류함

연구 참여자들은 기독교 신앙을 공유하는 직장동료와 기도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권면하며 각자의 경험을 나누는 등 신앙적 상호작용을 경험하였다. <참여자 1>의 경우는 이러한 경험이 단순히 일을 같이 하는 직장 동료로서의 관계 이상으로 '삶의 동역자' 관계를 형성하는데 핵심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신앙의 뭐 연한도 다르고 색깔도 다 다르지만 어떤 그런 부분들의 교감이 있을 수 있는 직장 동료를 만나면 어 일에서 뿐만 아니라 삶의 어떤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거 같아요. (중략) 서로 기도해주고 뭐 서로 이렇게 권면하는 그러니까 어 정말 힘들 때 뭐 묵상한 말씀을 이렇게 주고받는다고 안부를 물을 때도 그런 부분(신앙적인 부분)이 이렇게 가장 핵심이니까 이런 부분을 해주는 게 지나고 보니까 이게 굉장히 큰 힘이 됐던 거 같고 그, 그냥 일을 같이 하는 동료 이상의 관계를 만드는데 굉장히 핵심이 되는 거 같아요.”<참여자 1>

“신앙이 있는 직원들한테서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고 (중략) 같이 기도모임을 하는 동료들이라던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조금 더 제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것 같고요. 혹시나 제가 기독교적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좀..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 동료들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참여자 3>

② 비기독교인 동료와의 관계

i) 믿지 않는 동료를 전도의 대상으로 생각함

연구 참여자들은 조직 내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동료에 대해서 복음전파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참여자 6>

은 실제로 동료들 전도하기 위해 계속 기도하였고, 결국 전도에 성공하여 그 동료들이 현재는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하였다. <참여자 8> 역시 기관 내에 비기독교인 직원이 함께 근무하는데 기독교 조직에서 일하는 기회를 통해 그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저랑 동갑인 팀장이 있습니다. (중략) 근데 그 친구를 제가 전도를 할려고... (중략) 그 친구를 놓고 제가 계속 기도를 했어요."
<참여자 6>

"관장님이나 뭐 지나 이제 많은 분들은 (신앙생활을 안 하는 직원들에 대해) 전도를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참여자 8>

ii) 믿지 않는 동료의 입장을 헤아림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함께 일하는 비기독교인 동료들이 기관에서 요구하는 예배나 기도 등 신앙적인 의식에 참여해야 하는 것에 대해 그 입장을 생각할 때 미안하고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참여자 10>, 기독교 신앙으로 인하여 하위집단이 형성되고 비기독교인 동료들이 소외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참여자 7>

"기도할 때 온전히 정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아닌 경우 기도가 걸릴 때는 그 사람도 괴롭고 듣는 우리도 괴롭고 하니까 저는 이제 미안한 생각이 많이 들고 공정하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 때가 많아요. (중략) 그리고 어느 직장에 가서 아침에 기도를 하고 시작하겠어요. 저야 좋은데 그 마음이 열리지 않은 사람한테 참 공정하지 않은 거 같아서 불편한 것뿐이죠. 미안하고."<참여자 10>.

"우리 안에서 패를 나누는..... (중략) 혹시 패를 나누는 것처럼 돼서 거기에 합류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면 그것은 아닌 것 같더라는 그런...".<참여자 7>

2. 기독교 사회복지사들의 사회복지실천 경험의 일반적 구조

이와 같은 연구 참여자들의 기독교 사회복지사로서의 사회복지실천 경험을 일관성 있는 진술로 통합하여 보편적 구조로 기술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기독교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를 실천하면서 무엇을 경험하고 어떻게 경험하는지, 그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함축적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기독교 신앙과 사회복지실천을 떼려야 뗄 수 없는, 근본적으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사회복지지는 그 뿌리를 기독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데, 이는 사회복지의 역사적 발달 과정이 그러하기 때문일 뿐 아니라, 사회복지의 핵심적 가치가 바로 기독교적 가치에서 파생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들은 사회복지를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실행할 수 있는 대단히 유용한 도구로 간주한다. 사실 이들이 사회복지사라는 쉽지 않은 길을 선택하게 된 배경 역시 그러한 도구로 쓰임 받고자 하는 것이다. 이들은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사회복지실천에 기여하는 것을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데, 이들이 의미하는 사회복지실천이란,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물질적 원조와 같은 미시적 차원을 넘어서서, 제도와 정책과 같은 거시적 차원을 포괄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실천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교회와 효과적인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 기관은 밀접하고 원활한 관계를 이루면서, 서로를 도울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의 교회와 사회복지 기관은 서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채 겉도는 경우가 드물지 않아서 안타까움을 느끼게 된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일하는 사회복지실천의 현장이 세상 속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일반 지역사회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상황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사회복지실천을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 것인지 고민스럽다. 그들 중 몇몇은 나름대로의 결론에 도달했지만, 이 문제가 여전히 조

심스럽고 클라이언트의 영혼에 직접 다가가지 못하는 한계가 아쉬운 참여자들도 있다.

기독교 신앙은 연구 참여자들이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모습에 다각도로 영향을 미친다. 이들은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클라이언트들을 가치 있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불완전한 존재로 바라보고, 클라이언트들을 온전히 수용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수용의 동기는 인본주의의 그것과는 상당히 다른 것으로, 클라이언트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려는 시도이다. 클라이언트가 가치 있는 존재인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이고, 클라이언트가 불완전한 존재인 것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인 것이다. 이들이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기본적 자세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일한다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믿기 때문에 힘을 얻지만, 때로는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두렵기도 하다. 자신이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과정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지기를, 그리고 클라이언트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다르다'는 이야기 듣기를 기대한다. 이들에게 클라이언트는 낮은 자세로 섬겨야 하는 대상이다. 이들의 신앙은 클라이언트와 사업에 관련하여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클라이언트의 영적 영역에 개입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클라이언트의 능력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모습으로 구체화된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일하는 기독교기관이 일반 사회복지 기관과 다른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그 곳에서 차별화된 경험을 한다. 이들은 자신들의 일터가 자유롭고 권위적이지 않으며, 조직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기독교 공동체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기독교적 문화 속에서, 그리고 선후배동료들과의 신앙적 교류를 통하여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뿐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성장을 경험한다.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은 동료들도 함께 일하는데, 비기독교인 동료들이 신앙이 없는 상태에서 기관의 예배나 기도회 비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에 대해 불편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한

다. 비기독교인 동료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애쓰면서 궁극적으로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

V. 결론

본 연구는 기독교 사회복지사들의 사회복지실천에 현상학적으로 접근하여 이들의 사회복지실천 경험의 실제적 양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독교 사회복지 기관에서 근무하며 클라이언트에 대한 직접서비스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과거에 담당했던 경험이 있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회복지사 12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총 169개의 의미단위가 도출되었으며, 이는 9개 주제에 대한 22개 의미의 통합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기독교 사회복지실천 및 연구와 관련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참여자들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회복지사로서 자신의 신앙과 실천 활동을 통합하고자 하는 의식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다. 사회복지실천 활동의 기독교적 정체성, 그리고 기독교적 사명으로서의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인간을 보는 관점이나 사회복지실천의 자세에 있어서도 기독교 신앙적 기반 위에서 통합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신앙과 실천 활동의 통합 노력은 기독교인으로서 세상에서의 직업이 단순히 경제적 활동의 의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 주신 소명이라는 직업관에 근거해서 볼 때 매우 바람직한 양상이라고 하겠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사회복지실천의 뿌리가 기독교이며, 기독교를 실천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회복지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사회복지를 교회나 기독교인이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기독교와 사회복지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들(양혜원, 2008; 강춘근, 2004; 노상학, 1995; 오정수, 1991)에서 성경에 나타난 사회복지적 활동의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것과 일관된 내용으

로 연구 참여자들이 사회복지실천 활동의 기독교적 근거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하겠다.

둘째, 연구 참여자들의 기독교 신앙이 사회복지실천의 정체성이나 사명, 인간관, 실천의 자세 등과 같이 원론적 인식의 차원에서는 상당한 수준으로 통합되어 있는데 반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수준에서는 아직까지 초보적인 모습임을 알 수 있다. 기독교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방법으로서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의 내용을 보면, 클라이언트와 사업을 위해 기도를 하는 형태,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따라 신앙적인 주제로 상담을 하거나 프로그램 중에 기독교 의식을 진행하며, 혹은 교회자원을 연결하는 형태로 나타났고, 자신들이 가진 기독교적 인간관에 근거하여 클라이언트의 능력과 역량을 강화하는 접근을 활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의뢰하는 모습은 사회복지사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며, 기독교와 관련된 내용을 실천과정에서 다루는 것 역시 표피적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서 클라이언트에 대한 전인적 접근에 있어서 영적 차원을 명확하게 상정하고 이에 대한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개입을 하는 것이라 말하기는 어렵다. 또한 클라이언트의 역량을 강화하는 접근도 최근 강조되고 있는 일반 사회복지실천 모델을 기독교적 인간관에 근거하여 활용하고 있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 연구 동향에서 살펴본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 기독교 사회복지실천에 대한 연구 활동이 실제로 기독교 사회복지사들이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지침이 되거나 혹은 기독교 사회복지실천의 독특성을 드러내는 지식 및 기술 기반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과 맥을 같이 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기독교 사회복지에 대한 원론적 수준의 논의를 넘어서서 실제 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기독교적 독특성을 담고 있는 지식, 기술 그리고 가치 기반을 확립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라고 하겠으며, 또한 현재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독교 사회복지실천의 특성과 효과성을 입증하는 작업들이 병행될 때 기독교 사회복지의 영역이 명확해질 수 있고, 기독교 사회복지사들이 신앙

적 기반 위에서 전문직적 정체성을 확고히 해나갈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셋째, 기독교 사회복지실천의 구체적인 모습이 아직까지 초보적인 단계에 있음을 확인한 것과 더불어 특히 기독교 사회복지사들의 실천 경험에서 공유된 합의가 부족한 실정임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대표적으로 사회복지의 공공성과 기독교적 접근에 대한 경험, 그리고 같은 조직에서 근무하는 비기독교인 동료에 대한 경험에서 드러나고 있다. 먼저, 사회복지의 공공성과 기독교적 접근에 대한 경험으로 공공성 때문에 종교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입장, 공공성과 기독교적 접근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입장, 그리고 공공성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적 색채를 드러낼 수 있다고 여기는 입장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들 입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기독교인으로서 자신의 신앙과 사회복지실천 활동의 관련성에 대해, 그리고 사회복지의 공공성과 종교적 접근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고민의 결과는 종교적 중립성을 강조하는 입장으로부터 기독교적 색채를 드러낼 수 있다고 여기는 입장까지 서로 다르게 드러나고 있다. 또한 같은 조직에서 근무하는 비기독교인 동료에 대해서도 역시 기독교 기관에서 일하는 조건을 전도의 기회로 여기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비기독교인 동료들에게 기독교적 의식을 요구하는 것, 혹은 비기독교인 이기 때문에 소외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에 대해 헤아리는 입장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차이들은 기독교 사회복지실천과 관련된 활발한 논의과정을 거친 이후의 다양성이라기보다는 공론화된 논의과정 이전의 혼란스러움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혼란스러움 속에서 개인적인 견해들만 있을 뿐 합의점을 도출하고 정리하기 위한 학문적 논의나 토론의 기회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심지어는 기독교 신앙을 사회복지실천 활동에 접목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견해의 차이나 갈등이 있을 수 있는지 그 내용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기독교 사회복지실천과 관련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의를 이루어나가기 위해서는 기독교 신앙과 사회복지 실천을 통합해나가는 것에 대하여 학계 및 실천현장에서

서로들 간의 견해 차이를 확인하고 그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누며 고민을 공유하는 과정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과정을 뒷받침하고 정리해내기 위한 연구 작업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기독교 사회복지실천을 논의함에 있어서 교회의 역할이 중요함은 분명하다.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들 역시 교회와 사회복지 기관은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는 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 참여자들의 현실적인 경험은 교회와 사회복지가 서로에 대해 본질적인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기독교 사회복지실천의 발전적 모색을 위하여 교회 혹은 기독교인과 사회복지 기관 및 사회복지사들 간 서로에 대한 이해와 소통의 필요성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교회의 입장에서는 사회복지의 전문성에 대한 이해가, 사회복지의 입장에서는 단순한 자원의 차원을 넘어선 교회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상호 교류의 확대를 통해 교회와의 협력적 관계 정립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연구 참여자들은 기독교 기관의 조직문화 및 동료관계를 통하여 비권위적 특성, 성장의 경험, 동료와의 신앙적 교류 등 긍정적인 경험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조직 및 동료에 대한 이러한 경험은 사회복지 조직의 성과를 높이고 사회복지사의 임파워먼트를 용이하게 하는데 있어서 긍정적인 요인들로 언급되는 권한의 분산, 자율성, 조직 구성원 상호관계(장신재, 2003; Blau, 1981) 등과 맥을 같이 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기독교 기관으로서 가지는 이러한 장점들을 조직관리 및 운영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각과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독교 사회복지사들의 경험과 목소리를 통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회복지사들의 다양한 실천경험의 실제적 양상을 파악함으로써 이후 기독교 사회복지실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작업들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기독교 신앙과 사회복지실천의 접목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견해의 차이나 갈등이 있는

지조차 확인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현재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독교 사회복지사들이 자신의 신앙과 실천 활동을 어떠한 양상으로 통합해나가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한 첫 시도였다는 점에서 본 논문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회복지사들의 실천 경험 전반의 내용을 탐색하는데 1차적인 목적을 두다보니, 특정 주제나 특정 세부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탐색까지 진행하지는 못하였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기독교 사회복지실천의 독특성을 부각할 수 있는 실천 모델 및 기술 개발, 기독교적 가치 및 윤리 그리고 사회복지 전문직적 가치 및 윤리에 대한 접목을 통한 기독교 사회복지실천 윤리와 가치에 대한 정립, 그리고 사회복지의 공공성과 기독교적 접근, 기독교적 조직문화 등 특정 주제에 대한 후속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참고문헌

- 강영실 (2003), "교회사회사업의 자원동원과 모금," 『교회사회사업편람』, 한국교회사회사업학회, 687-715.
- 강춘근 (2004), "기독교 사회복지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신앙과 학문』, 9(1), 41-85.
- _____ (2005), "기독교 사회복지의 가치와 윤리에 대한 소고," 『신앙과 학문』, 10(1), 9-49.
- 권선진 (2003), "장애인과 교회사회사업1," 『교회사회사업편람』, 한국교회사회사업학회, 249-287.
- 관중돈 (2003), "노인과 교회사회사업," 『교회사회사업편람』, 한국교회사회사업학회, 177-215.
- 김규복 (2003), "외국인노동자문제와 교회의 사역," 『교회사회사업편람』, 한국

- 교회사회사업학회, 497-531.
- 김기원 (1998), 『기독교사회복지론』, 서울: 대학출판사.
- 김동춘 (2007), "구원과 복지," 『한국복음주의신학회 논문발표회 자료집』, 한국복음주의신학회, 88-99.
- 김은수 (2001), "기독교 사회복지의 신학적 패러다임," 『신학사상』, 112, 163-182.
- 김은수 외 (1998), "기독교 사회복지신학 모색을 위한 기초적 작업," 『기독교사상』, 475, 142-156.
- 김은홍 (2007), "선교의 통전적 이해를 통한 기독교사회복지," 『한국복음주의신학회 논문발표회 자료집』, 한국복음주의신학회, 46-64.
- 김인 (2003), "빈곤문제와 교회사회사업," 『교회사회사업편람』, 한국교회사회사업학회, 311-352.
- 노상학 (1995), "기독교복지사업의 이론적 배경 연구," 『한국사회복지』, 2, 3-24.
- 문순영 (2003), "여성과 교회사회사업," 『교회사회사업편람』, 한국교회사회사업학회, 217-250.
- 박은미 (2005), "빈곤청소년을 위한 교회사회복지 프로그램과 운영의 실제," 『한국교회의 사회복지와 기독교 생명운동』,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 2005 국제 심포지움 자료집, 101-133.
- 박종삼 (1996), "한국 교회사회사업학의 정립과 종교사회학," 『연세사회복지연구』, 3, 7-24.
- 박종삼 (2000), 『교회사회봉사: 이해와 실천』, 서울: 인간과 복지.
- _____ (2003), "교회사회사업의 개념," 『교회사회사업편람』, 한국교회사회사업학회, 27-38.
- 성민선 외 (2005), 『사회복지개론』, 서울: 도서출판 커뮤니티.
- 손병덕 (2003), "교회성장 요인으로서의 서울 경기지역 개교회의 사회복지사업 참여 연구," 『충신대논총』, 22, 245-263.
- _____ (2004), "전국 복지시설의 운영주체 분석에 의한 종교교단별 사회복지

- 사업활동 현황조사 그리고 한국 교회사회복지의 과제," 『총신대논총』, 24, 421-461.
- _____ (2007), "하나님, 교회, 그리고 세상 : Calvin의 하나님, 교회, 세상에 대한 이해가 교회의 사회복지사업 실천에 주는 교훈," 『신학지남』, 291, 159-181.
- 손봉호 (2007), "기독교와 복지," 『한국복음주의신학회 논문발표회 자료집』, 한국복음주의신학회, 1-10.
- 신경림 (2001), 『현상학적 연구』, 서울: 현문사.
- 신경림 외 (2004), 『질적 연구 방법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양혜원 (2008), "기독교사회복지의 개념과 실천모델에 대한 기초연구," 『총신대논총』, 27, 147-171.
- 오정수 (1991), "성경적 관점에서 본 사회복지 원리," 『통합연구』, 4(2), 139-154.
- _____ (2003), "교회사회사업의 윤리와 가치," 『교회사회사업편람』, 한국교회사회사업학회, 133-144.
- 유채영 (2003), "알코올문제와 교회사회사업," 『교회사회사업편람』, 한국교회사회사업학회, 433-468.
- 윤철수 외 (2008), 『사회복지개론』, 서울: 학지사.
- 이경우 (2000), "교회 사회복지사업의 실태분석과 발전방안 연구," 『산정논총』, (1), 141-164.
- 이만식 (2007), "한국 기독교사회복지의 실태," 『한국기독교사회복지총람』,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787-828.
- 이시연 (2003), "교회사회사업의 사례관리," 『교회사회사업편람』, 한국교회사회사업학회, 579-600.
- 이준우 (2003), "장애인교 교회사회사업2," 『교회사회사업편람』, 한국교회사회사업학회, 289-307.
- 장수미·김주현 (2005),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경찰 신고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6, 127-160.

- 장신재 (2003),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광현 외 (2005). 『기독교사회복지의 이해』, 서울: 양서원.
- 전석균 (2003), "교회사회사업의 집단활동," 『교회사회사업편람』, 한국교회사회사업학회, 601-623.
- 정무성 (2003), "교회사회사업의 프로그램 개발," 『교회사회사업편람』, 한국교회사회사업학회, 625-649.
- _____ (2005), "한국 기독교사회복지 자원 동원의 쟁점과 과제," 『한국교회의 사회복지와 기독교 생명운동』,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 2005 국제 심포지움 자료집, 31-43.
- 조희래 (2003), "아동·청소년과 교회사회사업," 『교회사회사업편람』, 한국교회사회사업학회, 147-175.
- 조흥식 (2007), "기독교사회복지의 개념과 방법론," 『한국기독교사회복지총람』,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139-150.
- 최무열 (2003), "교회사회사업의 신학적 기초," 『교회사회사업편람』, 한국교회사회사업학회, 39-93.
- _____ (2004), 『한국 사회와 사회복지』, 서울: 나눔의집.
- 최옥채 (2003), "비행범죄문제와 교회사회사업," 『교회사회사업편람』, 한국교회사회사업학회, 387-432.
- Barker, S. L. (2007), "The Integration of Spirituality and Religion Content in Social Work Education: Where We've Been, Where We're Going," *Social Work & Christianity*, 34(2), 146-166.
- Baum, N., H. Lahaki, F. M. Lowenberg, and D. Portowitz (1987), "The Impact of Religious Beliefs on Social Work Practice," *Social Work and Social Policy in Israel*, 1(1).
- Bethel, J. (2004), "Impact of Social Work Spirituality Courses on Student Attitudes, Values, and Spiritual Wellness," *Journal of Religion & Spirituality in Social Work*, 23(4), 27-45.

- Blau, G. (1981),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job Stress, Social Support, Service Length and Job Strain,"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Performance*, 27, 279-302.
- Bullis, R. K. (1996), *Spirituality in Social Work Practice*, Washington DC: Taylor & Francis.
- Canda, E. R. and L. D. Furman (1999), *Spiritual Diversity in Social Work Practice: The Heart of Helping*. New York: Free Press.
- Carroll, M. (2001), "Conceptual Models of Spirituality," *Transpersonal Perspectives on Spirituality in Social Work*, 20(1/2), 5-21.
- Cascio, T. (1998), "Incorporating Spirituality into Social Work Practice: A Review of What to Do," *Families in Society*, 79(5), 523-529.
- Chamiec-Case, R. and M. Sherr (2006), "Exploring How Social Work Administrators Integrate Spirituality in the Workplace," *Social Work & Christianity*, 33(3), 268-287.
- Chamiec-Case, R. (2007), "Exploring the filtering Role of Christian Beliefs and Values in the Integration of Christian Faith and Social Work Practice," *Social Work & Christianity*, 34(4), 498-512.
- Collins, W. L. (2005), "Embracing Spirituality as an Element of Professional Self-care," *Social Work & Christianity*, 32(3), 265-274.
- Council on Social Work Education (2001), Educational Policy and Accreditation Standards, <http://www.cswe.org>.
- Curlin, F. A., C. J. Roach, R. Gorawara-Bhar, J. D. Lantos & M. H. Chin (2005), "How Are Religion and Spirituality Related to Health? A Study of Physicians' Perspectives," *Southern Medical Journal*, 98(8), 282-299.
- Fitts, S. (2003), "Twelve-step Spirituality as a Model for Integrating Faith and Practice in a Secular Social Work Setting," NACSW Convention 2003.

- Hodge, D. R. (2001a), "Spiritual Assessment: A Review of Major Qualitative Methods and A New Framework for Assessing Spirituality," *Social Work*, 46(3), 203-214.
- _____ (2001b), "Spiritual Genograms: A Generational approach to Assessing Spirituality," *Families in Society*, 82(1), 35-48.
- _____ (2003), "Spiritual Assessment: Handbook for Helping Professionals, Botsford, CT: North American Association Christian in Social Work.
- Johnson, K., T. Noe, D. Collins, T. Stader, and G. Bucholz (2000), "Mobilizing Church Communities to Prevent Alcohol and Other Drug Abuse: A Model Strategy and Its Evaluation," *Journal of Community Practice*, 7(3), 1-27.
- Larson, G. and J. Robertson (2007), "Exploring the Experiences of BSW Students in Christian-based Practicum Settings," *Social Work and Christianity*, 34(2), 244-258.
- Lowenberg, F. M. and R. Dolgoff (1996), *Ethical Decisions for Social Work Practice*, F. E. Peacock Publishers, 서미경·김영란·박미은 역 (2000), 『사회복지실천윤리』, 서울: 양서원
- Modesto, K. E., A. J. Weaver and K. J. Flannelly, (2006), "A Systematic Review of Religious and Spiritual Research in Social Work," *Social Work & Christianity*, 33(1), 77-89.
-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1999), *Code of Ethics*, <http://www.socialworkers.org>.
- North American Association Christian in Social Work, <http://www.nacsw.org>.
- Parr, R. and Jones, L. (1996), "Should CSWE Allow Social Work Programs in Religious Institutions an Exemption from the Accreditation Nondiscrimination Standard Related to Sexual

- Orientation? Yes? No?," *Journal of Social Work Education*, 32(3), 297-313.
- Russel, R. (1998), "Spirituality and Religion in Graduate Social Work Education," *Social Thought*, 18(2), 15-29.
- Sheridan, M. J. (2004), "Predicting the Use of Spiritually-derived Interventions in Social Work Practice: A Survey of Practitioners," *Journal of Religion & Spirituality in Social Work*, 23(4), 5-25.
- Sheridan, M. J., and K. Amato-von Hemert (1999), "The Role of Religion and Spirituality in Social Work Education and Practice: A Survey of Student Views and Experiences," *Journal of Social Work Education*, 35(1), 125-141.
- Sheridan, M. J., C. M. Wilmer, and L. Atcheson (1994), "Inclusion of Content on Religion and Spirituality in the Social Work Curriculum: A Study on Faculty Views," *Journal of Social Work Education*, 30(1), 363-376.
- Sherwood, D. A. (1989), "How Should We Use the Bible in Ethical Decision-making? Guidance without Legalism or Relativism," *Social Work & Christianity*, 24(1), 29-42.
- Statal, J. M. (2000), "Building on Mutual Goals: The Intersection of Community Practice and Church-based Organizing," *Journal of Community Practice*, 7(3), 85-94.
- Svare, G. M., S. Jay, E. Bruce and S. Owens-Kane (2003), "Going Below the Tip of the Iceberg: Social Work, Religion, and Spirituality," *Social Thought*, 22(4), 19-35.

Abstract

**An Exploratory Study on Christian Social
Workers' Experience**

Hee Soo Kim(Korean Bible University)

Hae Won Yang(Chongshi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experience of Christian social workers from phenomenological perspective. Twelve Christian social workers who had identified themselves as Christians, and were employed at Christian social welfare agencies, and had experience of direct services for the clients, were interviewed. From the phenomenological analyses suggested by Giorgi, 169 meaning units, 22 syntheses of meaning, and 9 themes were derived. The themes were as follows: identity as a Christian social worker, social welfare as a Christian mission, relationship between churches and social welfare agencies, Christian social welfare in a public system, Christian views on human nature, attitudes as a Christian social worker, methods of Christian social work, relationships with co-workers and the organization in the Christian agencies, relationships with non-Christian co-workers. Based on the results, discussions and suggestions regarding Christian social welfare practice and research were made.

key word: Christian social worker, the experience of Christian social worker, phenomenological perspective